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화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및 사회적 참여의 차이*

유신복** · 김난옥***

초 록

본 연구는 오늘날 다양한 매체 환경에 노출된 중학생이 어떠한 형태로 매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적용하여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와 사회적 참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는 PC 및 모바일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SNS의 이용확률이 높은 편이고, 1인 방송, 팟캐스트,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 잡지의 이용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10개 미디어의 전반적 이용률이 높은 다중매체 이용 집단(2.2%), PC인터넷의 이용확률은 없으며, 모바일, 메시징서비스, SNS의 이용률이 높은 집단인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 집단(23.1%),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인터넷 이용확률도 높으며, 메시징서비스, SNS뿐만 아니라 1인 방송의 이용확률이 높고,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 잡지의 이용확률이 낮은 집단인 뉴미디어 중심 이용 집단(67.7%),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확률이 높기는 하나 이에 비해 다른 매체들의 이용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인 미디어 저이용 집단(6.9%)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둘째, 중학생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유형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와 사회적 참여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뉴스 리터러시는 '다중매체 이용집단'이 가장 높고,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사회적 참여인 서명운동과 기부경험도 '다중매체 이용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 및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중학생 미디어 레퍼토리, 뉴스 리터러시, 사회적 참여, 잠재계층분석

* 본 논문은 2019년 10월 20일 개최되었던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제3회 언론수용자·언론인 조사 통계 활용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평가 전공 박사과정, 교신저자, ailyn@hanmai.net

I. 서 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소년은 학업, 여가, 관계 등의 목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즉, 21세기의 청소년은 미디어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를 넘어 케이블, 인터넷, 휴대폰, DMB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다매체 세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에 따르면 청소년의 1주일간 미디어 이용률은 모바일 기반 인터넷이 가장 높았으나, 메시징 서비스, PC기반 인터넷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종이신문도 여전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다중 미디어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였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기존의 소수 대중매체가 제공하던 획일적인 서비스를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미디어를 선택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제한된 수의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를 혼합하여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dler, 1997).

다양한 매체를 통한 미디어 이용 패턴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개념으로 ‘미디어 레퍼토리(Media Repertoire)’를 들 수 있다. 미디어 관련 연구에서 레퍼토리라는 개념은 케이블 TV의 등장으로 생겨났으며, 사용자는 자신에 맞게 자주 이용하는 채널 묶음을 가진다는 채널 레퍼토리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Ferguson & Perse, 1993). 이후 미디어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그 개념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심미선(2007)의 연구에서는 다매체 환경의 이용행태를 미디어 레퍼토리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며,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수와 이들의 조합을 의미한다고 지칭하였다. Reagan(1996)은 미디어 레퍼토리를 여러 가지 정보 소스 중에서 개인들이 관심 있는 어떤 주제에 관하여 정보를 얻고자 주로 선택하는 미디어 묶음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즉, 미디어 레퍼토리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의 기호나 편의에 맞춰 미디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주요 미디어를 중심으로 다른 미디어를 보완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미디어를 고르게 사용하는 등 다양한 이용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패턴에 대한 연구(강남준, 이종영, 이혜미, 2008; 심미선, 2007; 이미영, 김담희, 김성태, 2010; 조성동, 강남준, 2009)가 증가해오고 있다. 심미선(200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은 7개의 매체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량에 따라 지상파 중심, 인터넷 중심 등의 5개 군집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하

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청소년은 아니었다. 심미선(2007)의 연구에서 이용한 7개의 매체에 비해 요즘 청소년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선택 또한 자유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201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2016)에 따르면 중학생의 일주일간 미디어 이용시간 평균이 약 8시간 41분으로 고등학생(7시간 53분)이나 초등학생(4시간 7분)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학생에게 미디어는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기에 중학생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이 주로 실태조사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이미영, 김담희, 김성태, 2010)가 2010년에 행해지기는 하였으나 연구대상 표집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군집의 수를 이론에 입각하여 사전에 규정해야 하는 군집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분류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잠재계층분석의 장점은 기존의 변인 중심 접근법이 아닌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 즉 개인 중심접근법에서 잠재집단을 찾아내고 군집분석 방법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다양한 적합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잠재집단 도출의 객관적 집단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여 학교 교육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시사를 도출하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문지혜와 이숙정(2015)의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뉴스 보기를 목적으로 하는 뉴스앱이나 뉴스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혹은 모바일 인터넷을 접속하며 수동적으로 노출되어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외의 연구결과(Boczkowski, Mitchelstein, & Matassi, 2017)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청소년들은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아닌 모바일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상시적으로 접속하여 부수적인 뉴스 읽기, 우연히 마주친 뉴스 읽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뉴스 읽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의 뉴스 이용습관은 성인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효과적인 뉴스 이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이러한 습관은 성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더욱 중요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Torney-Purta & Amadeo, 2011). 선행연구(Bode, Vraga, Borah & Shah, 2014; Hargittai & Shaw, 2013)에 따르면, 다양한 매체의 등장이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의 양상에도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회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중학생의 비율은 2018년 기준 88.4%(최창욱 외, 2018)이며, 그 비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오고 있다. 김희조(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다른 매체 보다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거나 게시판, SNS에 글을 쓰는 형태 등으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중학생의 뉴스 리터러시와 사회적 참여가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매체들의 조합에 따라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여 그들의 미디어 이용 양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뉴스 리터러시 수준과 사회적 참여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사회적 참여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레퍼토리

오늘날의 10대들은 그들의 부모와는 다른 미디어 환경에서 살고 있다. 지금의 10대들은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을 보기 힘들어졌으며, TV만이 유일한 정보를 습득하는 미디어도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여러 매체를 통한 미디어 이용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방식인 텔레비전과 신문, 라디오를 비롯해 이제는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SNS, 1인 방송, 팟캐스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은 정보를 얻고 사회에 대한 이슈를 알게 된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다중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강남준, 이종영, 이해미, 2008; 심미선, 김은실, 하예린, 2009; 정용복, 박성복, 2015).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의 보고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이 약 8시간 내외이며, 매체별 미디어 이용률은 모바일 인터넷 91.7%, 텔레비전 82.6%, 메시징 서비스 82.5%, SNS 66.0%, 1인 방송 26.7%, 라디오 19.8%, 종이신문 11.0%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의 기술적 진보는 10대의 미디어 이용자들이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전통 미디어에서 벗어나 케이블, 인터넷, 휴대폰 심지어 DMB 등의 다양한 뉴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다매체 이용 시대로 이끌어 주었다. 다매체 시대는 10대들에게 매체를 통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Poindexter, 2012).

미디어 레퍼토리(Media Repertoire)란 이러한 다양한 매체의 시대에 사용자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개념으로 개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시종일관 꾸준히 이용하는 미디어의 집합이다(Taylor, 1999). 원래 미디어 레퍼토리는 케이블이 도입된 후에 케이블 채널의 이용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채널 레퍼토리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채널 레퍼토리는 케이블 TV의 등장으로 시청 가능한 채널이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들은 무작위로 채널을 선택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채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신의 채널 레퍼토리를 통해 케이블 TV를 이용하게 된다(심미선, 2007). 레퍼토리에 관한 개념은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에 따라 프로그램 레퍼토리, 장르 레퍼토리, 웹사이트 레퍼토리, 미디어 레퍼토리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심미선(2007)은 미디어 레퍼토리가 가지는 유용성을 두 가지로 언급하였는데, 하나가 매체 중심적 이용 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가 미디어 조합에 따른 유형별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이었다. 지속적인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기존 미디어들의 변형으로 인해 다양한 매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 행태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최근에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묶음 목록을 탐색하고 이를 집단화 및 유형화하여 사회적 의미를 탐색해나가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정용복, 박성복, 2015; 조은희, 조성검, 2013). 물론 본

연구에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대상이 성인이라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내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미선(2007)의 연구에서는 지상파중심, 인터넷중심, 케이블-위성중심, 지상파-인터넷 중심, 다중매체이용자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강남준, 이종영과 이혜미(2008)의 연구에서는 기존주류미디어중심, TV중심, 다매체이용, 라디오중심, 휴대전화중심, 휴대전화-MP3중심, 인터넷 중심으로 7개의 유형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조성동과 강남준(2009)의 연구에서는 단일매체이용자, 이종매체이용자, 다중매체이용자로 3개 유형으로, 심미선, 김은실과 하예린(2009)의 연구에서는 다중매체이용자, 지상파중심, 케이블/위성중심, 지상파-케이블/위성중심, 인터넷중심, 케이블/위성-인터넷중심, 라디오중심의 7개로 유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한 이미영, 김담희와 김성태(2010)의 연구에서는 휴대폰중심, 다매체중심, 인터넷중심, TV중심, TV-인터넷 중심, 라디오중심, TV-핸드폰 중심의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이창훈과 김정기(2013)의 연구에서는 다중미디어이용, 친교목적 뉴미디어 다중이용, 유선방송-라디오, 오락/친교형 유료방송-모바일-SNS, 오락형 인터넷-전화, 정보형 모바일-SNS-인터넷, 저미디어 이용의 7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용복과 박성복(2015)의 연구에서는 신문중심, 지역일간지중심, 휴대폰-인터넷중심, 다매체활용, 지역TV방송중심, 라디오방송중심의 6개로 분류되었으나, 연구의 경우 표집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해석의 일반화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유형과 차별화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나 10대, 특히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미디어 이용이 개인의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에서도 개인의 연령이나 세대 간 연구는 중요한 연구대상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다매체 시대에 다양한 미디어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중학생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고 각 레퍼토리 내에서 미디어 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조합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2. 미디어 레퍼토리와 뉴스 리터러시 및 사회적 참여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뉴스 리터러시와 사회적 참여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뉴스 리터러시는 오늘날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숙정, 양정애, 2017). 제한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뉴스를 공유하는데 사용되는 미디어가 급증하고 있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맞게 이용자들이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선택하여 보고 있는지 혹은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접하고 있는지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이숙정, 양정애, 2017).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라는 콘텐츠의 비판적 이해 및 생산, 활용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데 있어 유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적 관심사를 확대하여 공동체 문제 해결에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뉴스를 책임감 있게 공유하고 생산하는 역량으로 이해된다(이숙정, 양정애, 2017; 장은주, 정현선, 길호현, 김아미, 2017).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디지털시대의 시민 능력 함양 교육으로서 지식 정보화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려는 국내 교육 방향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기보다는 주로 인터넷포털이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dgerly et al.(2017)과 양승찬, 이미나와 신지희(2019)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뉴스이용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뉴스이용이 뉴스 미디어 관여나 댓글 작성 등의 사회적 참여 행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더욱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하기 등의 사회적 참여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Baran & Davis, 2015). 즉 미디어 이용은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윤미선, 이종혁, 2012; Fleming & Thorson, 2008).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유혜영, 2014). 김영인(2007)의 연구에서는 집회 및 시위 참여에서부터 봉사활동까지의 참여를 의미하며, 허인숙과 이정현(2004)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행위로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창호와 모상현(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를 기부행위 및 서명운동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중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학생들의 경우 선언이나 서명에 동참하거나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쓰는 형태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는 미디어 이용과의 관련성이 이미 선행연구(김준홍, 2012; 박진영, 강태용, 2011; 양승찬, 이미나, 신지희, 2019; 임정재, 강정환, 김상돈, 2011)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사용하였다.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는 2016년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으며, 보다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할 것으로 보여 중학생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학생 총 809명이며, 남학생 408명(50.4%), 여학생 401명(49.6%)이었다. 자세한 분석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특성

전체	학년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학생	여학생
809 (100.0)	261 (32.3%)	298 (36.8%)	250 (30.9%)	408 (50.4%)	401 (49.6%)

2. 측정도구

1) 미디어 레퍼토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활용하였다. 원자료에서 컴퓨터(데스크톱 등)를 통한 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한 인터넷, 메시징서비스(카카오톡, 라인, 네이버온,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 1인 방송, 팟캐스트,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 잡지 등 10개 항목으로 미디어 레퍼토리를 구분하여 각 항목별 이용 여부를 측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10개의 미디어 레퍼토리별로 이용하였으면 1, 이용하지 않았으면 0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미디어 유형별 이용 현황은 표 2와 같다.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률이 9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메시징서비스, SNS, 텔레비전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팟캐스트, 종이신문, 잡지의 이용률은 낮은 편이었다. 1인 방송의 이용률이 32.1%로, 본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의 3명 중 1명은 1인 방송을 이용하고 있었다(표 2 참고).

표 2
미디어 유형별 이용여부(%)

구분	1 PC 인터넷	2 모바일 인터넷	3 메시징 서비스	4 SNS	5 1인 방송	6 팟 캐스트	7 텔레 비전	8 종이 신문	9 라디오	10 잡지
이용안함	25.0	4.1	11.1	17.9	67.9	94.4	13.2	90.4	80.5	90.4
이용함	75.0	95.9	88.9	82.1	32.1	5.6	86.8	9.6	19.5	9.6

2) 특성요인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수준 및 사회적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한 변인은 표 3과 같으며 사용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뉴스 리터러시는 학생의 뉴스 이용 형태와 관련된 10개 문항으로 7점 척도(전혀 하지 않는다=1, 중간=4, 대체로 그렇게 한다=7)로 측정되었다. 뉴스 리터러시는 선별적 읽기, 비판적 읽기, 균형적 읽기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양정애, 김경보, 강용철, 박한철, 2016). 자신에게 필요한 뉴스인지 판단하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선별적 읽기와 뉴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비판적 읽기, 뉴스가 만들어진 환경을 이해하고 특정 관점에서 만들어진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의 뉴스도 찾아보는 균형적 읽기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참여는 서명운동과 기부경험 여부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표 3
분석 변인 설명

구분	설명	신뢰도
뉴스 리터러시	· 자신에게 필요한 뉴스인지 판단하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 (3문항 평균값, 7점척도)	.883
	선별적 읽기 - 나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골라서 본다 - 뉴스가 나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살펴본다 - 뉴스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판단한다	
	· 뉴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봄(4문항 평균값, 7점척도)	.761
비판적 읽기	- 뉴스의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해본다 -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를 확인해본다 - 뉴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변에 물어본다 - 뉴스 내용 이해를 위해 추가 정보를 찾아본다	
	· 뉴스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이해하고 특정 관점에서 만들어진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의 뉴스도 찾아봄(3문항 평 균값, 7점척도)	.862
균형적 읽기	- 특정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찾아본다 -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작성된 뉴스를 비교해 본다 - 나와 다른 의견/입장을 가진 언론사의 뉴스도 본다	
	사회적 참여	
서명운동	길거리 또는 인터넷 서명운동 참여 여부(있음=1, 없음=0)	-
기부경험	기부경험 여부(있음=1, 없음=0)	-

※ 신뢰도는 cronbach α 임.

표 4

독립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뉴스 리터러시	선별적 읽기	1.00	7.00	4.05	1.70
	비판적 읽기	1.00	7.00	3.32	1.49
	균형적 읽기	1.00	7.00	2.79	1.61
사회적 참여	서명운동	.00	1.00	.24	.43
	기부경험	.00	1.00	.46	.5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잠재계층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18.0과 Mplus 8.1(Muthén & Muthén, 1998-201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레퍼토리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기존의 변인중심접근과 달리 개인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잠재계층을 추정·분류하는 인간중심접근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잠재적 이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5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비교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 분류의 질, 집단 내 분류비율,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정보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수정된 BIC(Sample-size Adjusted BIC)을 사용하였다. 이들 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임을 의미한다. 모형비교검증 방법은 우도비 검증방법인 LM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다. LMRT는 k 개의 잠재계층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1$ 개의 잠재계층의 모형과 비교하여, 모형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검증 결과, k 개의 잠재계층의 유의확률 값이 유의하다면 k 개의 모형을 사용하고 유의하지 않다면 $k-1$ 개의 모형을 사용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를 사용하였는데, Entropy는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또한 너무 작은 규모

는 집단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기에 1% 미만의 분포를 보이는 집단이 있는지도 검토하였다(Jung & Wickrama, 2008). 둘째,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 잠재계층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 수준과 사회적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잠재계층분석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잠재계층을 탐색하기 위하여 잠재계층의 수를 2개~5개로 설정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정보지수의 경우 AIC와 SSA-BIC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잠재계층의 수가 5일 때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IC는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LMRT 결과는 잠재계층의 수가 2개와 4개일 때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잠재계층의 수가 3개와 5개일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미만인 잠재계층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5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계층수	-loglikelihood	AIC	BIC	SSA-BIC	entropy	pLMRT	1% 미만 집단 여부
2	-3083,403	6208,805	6307,417	6240,730	.944	.000	0
3	-3054,858	6173,717	6323,982	6222,364	.903	.331	0
4	-3032,339	6150,678	6352,597	6216,047	.949	.011	0
5	-3020,042	6148,083	6401,656	6230,175	.916	.711	0

분류된 잠재계층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집단(class 1)은 PC 및 모바일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SNS의 이용확률도 높은 편이고, 1인 방송, 팟캐스트,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 잡지의 이용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10개 미디어의 전반적 이용률이 높아 ‘다중 매체 이용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2.2%의 중학생이 이 집단에 속하였다. 두 번째 집단(class 2)은 PC인터넷의 이용확률은 없으며, 모바일, 메시징서비스, SNS의 이용률이 높은 집단으로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23.1%의 중학생이 여기에 속하였다. 세 번째 집단(class 3)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인터넷 이용확률도 높으며, 메시징서비스, SNS뿐만 아니라 1인 방송의 이용확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 팟캐스트,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 잡지의 이용확률은 낮은 집단으로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집단에는 가장 많은 67.7%의 중학생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집단(class 4)은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확률이 높기는 하나 이에 비해 다른 매체들의 이용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미디어 저이용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6.9%의 중학생이 여기에 속하였다. 특히 ‘미디어 저이용집단’은 메시징 서비스 및 SNS의 이용확률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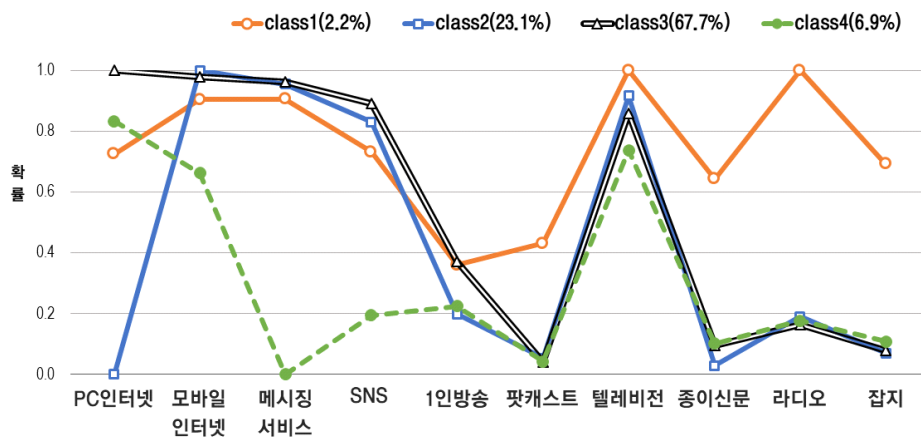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미디어 레퍼토리에 따른 잠재 계층 유형

2.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및 사회적 참여의 차이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와 사회적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 중학생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중학생의 뉴스 리터러시는 선별적 읽기, 비판적 읽기, 균형적 읽기 모두 ‘다중 매체 이용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사후분석 결과,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에 비해 ‘다중 매체 이용집단’의 선별적 읽기, 균형적 읽기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에 비해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의 선별적 읽기, 비판적 읽기, 균형적 읽기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중학생 집단에서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차이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선별적 읽기	다중 매체 이용집단	4.87	1.42	4.223**	1)2 2)3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	3.72	1.73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	4.12	1.68		
	미디어 저이용집단	4.17	1.75		
	전체	4.05	1.70		
비판적 읽기	다중 매체 이용집단	3.92	1.36	4.657**	2)3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	3.00	1.54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	3.39	1.45		
	미디어 저이용집단	3.55	1.60		
	전체	3.32	1.49		
균형적 읽기	다중 매체 이용집단	3.74	1.34	5.717**	1)2 2)3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	2.43	1.57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	2.87	1.62		
	미디어 저이용집단	2.87	1.53		
	전체	2.79	1.61		

** $p < .01$; 사후검정은 turkey HSD 결과임.

다음으로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 사회적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서명운동의 경우 4개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 모두 서명운동 비경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서명운동 경험자의 비율은 ‘다중 매체 이용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 ‘미디어 저이용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기부경험의 경우 ‘다중 매체 이용집단’에서는 기부 경험자 비율이 높았던 반면, 나머지 3개 집단에서는 기부 비경험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표 7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사회적 경험 차이

구분	전체	모바일-소셜 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				비고
		다중 매체 이용집단 (1)	모바일-소셜 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 (2)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 (3)	미디어 저이용 집단 (4)	
서명 운동	없음	616 (76.1)	12 (66.7)	150 (80.2)	405 (73.9)	49 (87.5)
	있음	193 (23.9)	6 (33.3)	37 (19.8)	143 (26.1)	7 (12.5)
기부 경험	없음	433 (53.5)	3 (16.7)	99 (52.9)	298 (54.4)	33 (58.9)
	있음	376 (46.5)	15 (83.3)	88 (47.1)	250 (45.6)	23 (41.1)

* $p < .05$

V. 결론 및 제언

20세기 말 이후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SNS나 1인 방송 등이 활발해지면서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보다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맡게 되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미디어 이용률이 다른 학교급을 앞서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에 초점을 두어 미

디어 레퍼토리의 잠재유형을 파악하고, 이들 이용 형태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언론진흥재단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중학생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이용 여부에 따라 다중 매체 이용집단(2.2%),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23.1%),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67.7%), 미디어 저이용집단(6.9%)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중 매체 이용집단은 PC 및 모바일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및 SNS, 1인방송 및 팟캐스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잡지 등의 전통미디어 모두를 고루 사용하는 집단이며, 모바일-소셜 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은 다른 매체에 비해 모바일 인터넷과 메시징 서비스 및 SNS의 이용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은 PC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확률이 모두 높고, 메시징 서비스, SNS, 1인방송 등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집단이며, 미디어 저이용집단은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메시징 서비스, SNS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다. 중학생의 66.7%는 뉴미디어의 이용확률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미디어 중에서 특히 메시징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킹 관련 미디어 중심 이용집단이 23.1%로 나타나 모바일이나 SNS 등의 미디어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뉴미디어 중심 이용 집단에서 1인 방송의 이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 전체 중 32.1%가 1인 방송을 이용하고 있고 텔레비전을 제외한 전통 미디어보다 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매체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한 이미영, 김담희, 김성태(201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미영, 김담희, 김성태(2010)의 연구에서는 7개의 유형인 휴대폰중심, 다매체중심, 인터넷중심, TV중심, TV-인터넷중심, 라디오중심, TV-핸드폰 중심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에서 분류된 집단과 유사한 집단인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과 다중 매체 이용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영 외(2010)의 연구에서는 휴대폰중심 집단이 21.9%, 다매체중심 21.5%, 인터넷중심 19.1%로 비슷한 크기의 양상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도 높으며 새로운 미디어인 메시징서비스, SNS뿐만 아니라 1인

방송의 이용확률이 높은 뉴미디어 중심 이용 집단이 67.7%로 확연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매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에 이러한 결과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0대 청소년의 다양한 미디어 이용 유형을 확인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선별적인 매체 이용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양상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레퍼토리의 유형에서 TV라는 올드미디어의 이용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올드미디어인 라디오나 잡지와 달리 TV의 이용률은 86.8%로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독보적인 매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0대 청소년에게 TV는 지금도 높게 이용되고 있으며, 유용한 매체이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매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 수준과 사회적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다중 매체 이용 집단에서 선별적 읽기, 균형적 읽기, 비판적 읽기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소셜 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장은우(201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참여 정도에서 서명운동의 경우 4개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 모두 서명 운동 비경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서명운동 경험자의 비율은 '다중 매체 이용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 '모바일-소셜 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 '미디어 저이용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경험의 경우 '다중 매체 이용집단'의 경우 기부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소 상반된 견해들이 보였는데, 인터넷 및 TV 이용량의 증가와 사회참여 활동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선행연구(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 Keum et al., 2004; Kraut et al., 1998)도 있는 반면 TV 시청과 사회적 참여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Putnam, 1995)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에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변인들의 탐색을 통하여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교육에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수록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나 사회적 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바일-소셜 네트워킹 중심 이용집단의 경우 메시징 서비스나 SNS가 자신 및 주변의 이야기나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공유가 중심이고, 친구나 타인과의 교류가 중심이 되는 매체이므로 이들 중심의 매체 이용은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나 사회적 참여 정도에 대한 영향력이 작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중학생이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뉴스를 선별적, 균형적 및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인 뉴스 리터러시가 높으며 사회적 참여인 서명이나 기부를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교육대상이 중학생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양정애, 김정보, 2018)에 기반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설계에서 다중 매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할 때 미디어의 이용 여부만을 측정한 현재의 데이터로는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디어의 영향은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용시간도 영향을 줄 수 있다(Kim, 2014)는 점에서 추후 분석에서는 미디어의 이용시간이나 사용 목적 등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게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분류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뉴스 리터러시와 사회적 참여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secondary data의 한계 상 학업 수준이나 다른 배경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 수준의 다양한 배경 변인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더욱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류된 다중 매체 이용집단의 비중이 작아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남준, 이종영, 이혜미 (2008).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분석. **한국방송학보**, 22(2), 7-46.
- 금희조 (2010).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 자본: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연결적 vs. 결속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5), 9-46.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14(6), 99-127.
- 김준홍 (2012).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이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교육 수준의 조절효과. **미디어와 교육**, 2(2), 69-95.
- 문지혜, 이숙정 (2015).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정치적 시민성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1), 217-244. doi:10.14816/sky.2015.26.1.217
- 박진영, 강태영 (2011). 매체 이용자 집단별 사회자본 상관분석: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사회참여와 인적교류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28(1), 5-51.
- 심미선 (2007). 다매체시대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2), 351-390.
- 심미선, 김은실, 하예린 (2009). 미디어 이용의 보완 및 대체에 관한 연구: 미디어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3), 317-364.
- 양승찬, 이미나, 신지희 (2019). 뉴스미디어 이용과 인터넷토론효능감이 선거 과정 온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5(1), 57-90. doi:10.20879/ct.2019.15.1.057
- 양정애, 김경보, 강용철, 박한철 (2016). **뉴스 리터러시 교육 II: 평가체계 및 내용개론**.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doi:10.978.895711/4254
- 유혜영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141-166.
- 윤미선, 이종혁 (2012). 소셜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매개모델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2), 5-44.
- 이미영, 김담희, 김성태 (2010). 청소년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82-106.

- 이숙정, 양정애 (2017). 뉴스 리터러시가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1(6), 152-183.
-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대중 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 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9(3), 234-261.
- 이창호, 모상현 (2012).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탈물질주의가치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43-164.
- 이창훈, 김정기 (2013). 다중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특성과 사회적, 개인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347-380.
- 임정재, 강정환, 김상돈 (2011).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12(2), 37-67.
- 장은주, 정현선, 길호현, 김아미 (2017).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중학교 교과서 단원 모형 개발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 79-117.
- 장은우 (2014). **인터넷 접근과 활용 및 인지요인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용복, 박성복 (2015).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지역사회자본과 사회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3), 60-93.
- 조성동, 강남준 (2009). 다매체 환경 정착에 따른 수용자들의 매체이용 특성변화와 이용매체 구성변화. **한국언론학보**, 53(1), 233-256.
- 조은희, 조성겸 (2013). 다매체 이용수준과 숙의적 성향: 선택적 노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2), 370-396.
-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doi:10.978.895711/4346
- 허인숙, 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2), 443-472.
- Baran, S., & Davis, D. K. (2015). *Mass communication theory: Foundations, ferment, and future*. Stamford, CT: Cengage Learning

- Boczkowski, P., Mitchelstein, E., & Matassi, M. (2017, January). *Incidental news: How young people consume news on social media*. In Proceedings of the 50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doi:10.24251/HICSS.2017.217
- Bode, L., Vraga, E. K., Borah, P., & Shah, D. V. (2014). A new space for political behavior: Political social networking and its democratic consequenc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9(3), 414-429. doi:10.1111/jcc4.12048
- Edgerly, S., Vraga, E. K., Bode, L., Thorson, K., & Thorson, E. (2018). New media, new relationship to participation? A closer look at youth news repertoir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5(1), 192-212. doi:10.1177/1077699017706928
- Ferguson, D. A., & Perse, E. M. (1993). Media and audience influences on channel repertoir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7(1), 31-47. doi:10.1080/08838159309364202
- Fleming, K., & Thorson, E. (2008). Assessing the role of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in learning from local news media about sources of social capital.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1(4), 398-419. doi:10.1080/15205430801950643
- Fidler, R. (1997). *Mediamorphosis: Understanding new media* (Vol. 145). Pine Forge Press.
- Hargittai, E., & Shaw, A. (2013). Digitally savvy citizenship: The role of internet skills and engagement in young adults' political participation around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7(2), 115-134. doi:10.1080/08838151.2013.787079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doi:10.1111/j.1751-9004.2007.00054.x
- Keum, H., Devanathan, N., Deshpande, S., Nelson, M. R., & Shah, D. V. (2004).

- The citizen-consumer: Media effects at the intersection of consumer and civic culture. *Political Communication*, 21(3), 369-391. doi:10.1080/10584600490481479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 doi:10.1037//0003-066x.53.9.1017
- Nie, N., & Ebring, L. (2000). Study offers early look at home Internet is changing daily life. Retrieved March, 18, 2007.
- Poindexter, P. M. (2012). *Millennials, news, and social media: Is news engagement a thing of the past?*. New York: Peter Lang.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35-42.
- Reagan, J. (1996). The “repertoire”; of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0(1), 112-121. doi:10.1080/08838159609364336
- Taylor, E. J. (1999). The new economics of labour migration and the role of remittances in the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37(1), 63-88. doi:10.1111/1468-2435.00066
- Torney-Purta, J., & Amadeo, J. A. (2011). Participatory niches for emergent citizenship in early adolescen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33(1), 180-200. doi:10.1177/0002716210384220

ABSTRACT

Differences in news literacy and soci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media repertoire classes in middle school students

Yu, Shin-bok* · Kim, Nan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media use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what types of media are used by adolescents exposed to various media environment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ategorized types, w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news literacy and soci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media repertoire types.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data conduct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and classified the latent class by apply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method. As a result, first, the media repertoire of middle school student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classes: a multi-media use group, a mobile-social networking-oriented use group, a new media-based use group, and a media low-use group, respectively. Second, according to the media repertoir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news literacy and the degree of social participation. Selective reading, balanced reading, and critical reading were all high in the multi-media use group, and the average of the mobile-social networking-focused use group was the lowest.

Key Words: media repertoires, news literacy, social participation, middle school students, latent class analysis

투고일: 2019. 12. 9, 심사일: 2020. 1. 31, 심사완료일: 2020. 2. 13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